

<p>헤드라인 (요약과 압축)</p> <p>기사링크</p>	<p>유은혜 AI로 미래교육 대전환 일어날 것</p> <p><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447366?date=20201111">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447366?date=20201111</a></p>
<p>본문 (본문 내용 복사)</p>	<p>[글로벌인재포럼 2020 11일 개막]</p> <p>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미래학교에 대해 “단순히 학교 시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과정,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미래교육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p> <p>유 부총리는 10일 ‘글로벌인재포럼 2020’의 개막(11일)을 앞두고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위기가 미래교육의 대전환을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올초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등교가 중단되고 전면적인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면서 각종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정부는 최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내놓고, 본격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 부총리는 올초부터 교사, 연구소 등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를 두루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p> <p>유 부총리는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18조5000억원을 투입해 학생,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고려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공간의 혁신은 물론 교육과정부터 교원 양성 체제까지 손질해 국가경쟁력이 될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소개했다.</p> <p>11일과 12일 이틀간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리는 올해 글로벌인재포럼에서도 ‘인공지능(AI)과 인간,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주제로 미래교육의 해법과 인재 양성, 인적 자원(HR) 전략 등을 모색한다.</p>

장클로드 융커 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마이클 조던 미국 UC버클리 교수, 고노 마사미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 이정동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각계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가르치는 법부터 평가방식까지 모두 혁신해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AI시대 다양한 수업방식으로 맞춤 진로 설계 가능해질 것**"

"미래 교육의 대전환을 위해선 학교 공간뿐 아니라 교수법, 교원 양성 과정까지 모두 혁신해야 합니다. 이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고, 교사들은 협업을 통해 미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래 학교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18조5000억원을 들여 초·중·고교 노후 건물 2835동을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AI시대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요.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응하려면 단순 지식 습득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협업, 소통 역량**이 AI시대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이 같은 핵심 인재를 양성하려면 주입식 지식 전달 대신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 교수법이 필요하죠."

▷교육 대전환에 앞서 변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AI시대를 주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려면 현재의 교수법과 평가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학교별 특수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고,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진로를 맞춤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2022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면적인 교육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높게 형성돼 있어요. **원격수업, 대면수업 병행이 가능한 다양한 수업방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25년 도입할 **고교학점제**가 다양한 수업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사례죠. 문과, 이과를 뛰어넘어 누구나 수학, 과학, 인공지능(AI) 등 기초 소양은 갖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 학교의 본보기로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협업하면서 미래 역량을 쌓아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정부나 교육청의 지침을 따르기보다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원격수업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요.

“학교 현장에서 보면 원격수업을 위해 열정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디지털 교육을 위해선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과 교원 양성 체계 개편이 시급하죠. 우선적으로 미래 교육을 위해 교사들의 역량 강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야 합니다.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협업하고, 교육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에요.”

▷ 대학 혁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쓸모없어진 규제가 많아요. 원격수업 비중 20% 제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규제들을 대폭 풀어 대학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줄 방침**입니다. 물론 혁신에 대한 대학들의 책임도 필요합니다. 각 대학이 산업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협력사업 등을 통해 지역과 상생·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원하겠습니다.”

	<p>▷ <b>디지털 정보 양극화</b>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p> <p>“정부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한 명도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전 생애에 걸친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초등 단계부터 <b>AI,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한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고, 학생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화할</b> 계획입니다.”</p>
<b>본문의 근거 (객관적인 수치)</b>	<p>✓ 향후 5년간 18조5000억원을 투입해 학생,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고려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조성</p>
<b>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b> <small>(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small>	<p>[ AI와 교육 ]</p> <p>✓ 에듀테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가 결합된 신조어</li></ul> <p>✓ 에듀테크의 교육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상현실 &amp; 증강현실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li><li>- 인공지능 &amp; 머신러닝 기술 활용한 AI (로봇 선생님) 등장</li><li>- 온라인 대규모 공개 강의</li></ul> <p>✓ 에듀테크의 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 (ex. 교사가 학생의 성과를 실시간으로 확인 &amp; 각자 맞춤형 과제 내주는 플랫폼)</li><li>- 빅데이터 활용한 효율적 분석 (ex. 과목의 교차분석 통해 학생별 학습 수준에 따라 AI가 콘텐츠 제공)</li><li>- 마이크로 러닝 학습 가능 : 한가지 수업에 여러 내용 다 담는게 아닌 학습자가 필요한 한가지 정보만 짧은 순간에 바로 전달하여 원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된다.</li></ul> <p>[ AI 기술 ]</p> <p>✓ AI기술의 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간이 수동적으로 해야 했던 일들을 최소화하거나 대체하여 업무 효율성 높임</li><li>- 데이터 입력 등 많은 업무를 AI 기술을 통해 자동화함으로써 상당한 노동력과 비용 절감 효과</li><li>- AI가 충분한 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토대로 학습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인력 간 기술 격차를 좁힘</li></ul>

	<p>✓ AI기술의 단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학습되지 않았거나 추론을 할 수 없는 예기치 상황이 발생할 시, 평소와 달리 엉뚱한 결과 냄</li><li>- AI 기술의 활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규범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 야기함</li><li>- 인간의 지시 없이는 시작과 종료 시점을 스스로 정할 수 없음 &amp; 결과에 대해 '잘 했다', 혹은 '못 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li><li>-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능하지만,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스스로 정의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li><li>- 단일한 기능 수행에 최적화</li></ul>
<p><b>적용할점</b> (현직자에게 할 질문)</p>	<p>✓ 에듀테크가 상용화 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더 개선해야하는지</p>
<p><b>연관기사 링크</b></p>	<p>인공지능(AI)의 장점과 한계점</p> <p><a href="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46">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46</a></p>